#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제9대 학생회
# 제6차 학부운영위원회

발신 : 자유전공학부 집행위원회
수신 : 자유전공학부 학부운영위원회
일시 : 2017년 04월 26일(수) 18:30
장소 : 고려대학교 ㄷ법학관 505호
기록자 : 이수진
개의시간 : 18:33

## ◎ 각 단위 별 특이사항

| | |
|---|---|
| **A반** | 없음 |
| **B반** | 없음 |
| **C반** | 없음 |
| **D반** | |
| **자치단체연합** | 궐위 |

## ◎ 출석

| 학생회장 | 부학생회장 | A반 학생회 | B반 학생회 | C반 학생회 | D반 학생회 | 자치단체 연합회 |
|---|---|---|---|---|---|---|
| 강민혁 | 고병준 | 김광태 | 강성진 | (궐위) | 성재현 | (궐위)) |
| O | O | O | O | - | X | - |

- 참관인 : 정현수, 최기선, 강승희

## ◎ 학생회 보고안건

| | |
|---|---|
| **학생회장단** | |
| **집행위원장실** | |
| **사무국** | |
| **교육국** | |
| **복지국** | -04월 24일 (월) 간식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br>- 보조배터리, 양심우산 구매 완료하였고 번호 부착 완료했습니다. |
| **문화국** | |





## ◎ 논의 및 의결 안건

### 1. C반 비대위원장에게 한시적으로 학부운영위원회 위원자격을 부여하는 건

**찬성 : 학생회장, B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A반 학생회장**
**반대 : 없음**
**기권 : 없음**

**찬성 4, 반대 0, 기권 0, 가결**

### 2. 4.18 결강계에 관한 논의

학: 418 결강계 받았습니다. 저번에 페이스북에 올라가서 논란이 있었다. 논의해보자.
부: 원칙적으로 발급은 안 된다. 4.18 결강계는 행사를 위한 것이니까 발급은 어렵다. 다만, 자전 학생회장 명의로 수업 참여가 어려웠다는 내용을 담아 결강계를 발급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참관인(강승희) : 많은 불편이 있었다. 실제로 제가 목격기에도 많은 학우들이 비에 많이 젖어 수업을 가지 못했다. 학생회 차원에서 가능하면 5교시까지 연장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학: 우선, 학부장님 명의로 된 것은 발급이 어렵다.
부: 그래서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장 명의로 발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다. 행사참여 때문에 결강했다는 내용은 아닐거 같고, 비도 젖고 해서 갈 수 없었다는 식으로 자전 학생회장 명의의 결강계를 발급하고자 한다. 총학생회장 명의의 결강계의 경우는
총학생회장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냐 마냐 결정하기 어렵다. 그 것은 총학생회장 권한이고, 우리 권한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 차원에서 주는 것이 깔끔하다
B: 총학에서 결강계 관련 지침은 있었나?
부: 따로는 없었다.
A: 총학 차원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다. 혹시 다른 학과는 이런 문제가 없나?
부: 다른 학과도 해산시키겠다는 말이 있었나? 해산시킨 학과는 자전밖에 없다.
4교시까지는 총학 차원의 결강계, 그 이후부터는 자전 차원에서 결강계 발급할 것이다.
참관인(최기선): 위의 말이 적절한 것 같다. 결강계에 대한 지침 같은 것들이 부족했던 것 같다. 또한 확실히는 모르지만 오해를 하게 할만한 발언이 있었던 거 같다. 이러한 갈등문제에 대해서 학생회가 책임이 있다면 말을 좀 더 부드럽게 함으로써 갈등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결권은 일반 학우에게 없지만 의견 개진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 위의 의견에 공감한다. 그래서 계속 공지할 예정이다. 그런데 어느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나?
참관인(최기선): 학우들이 결강계 발급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때문에 학우들이 중간에 돌아가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강계를 발급해주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오해와 갈등이 빚어진 듯하다. 결강계를 발급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지해 줬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부: 공지 안 한 부분에 있어서 학생회 차원의 문제라고 인정한다. 또한 학우들이 의견 개진 방법은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참관인(강승희): 결강계 문제는 특수한 기상악화로 인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학생회가 큰 잘못을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원칙만을 지키려는 모습과 어조 부분에서 학생들의 이해관계를 다소 신경쓰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받아들이는 학우들의 입장에서 어조 부분에서 불편함을 받았다.
부: 속기는 맥락이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많은 부분들이 생략되면서 이러한 오해가 빚어진 것 같다.
학: 결강계 나눠주도록 하겠다. 결강계는 파일로 나눠주는 것이다.
A: 원래 총학 명의의 결강계를 안 받아주는 교수님이 있다. 우려되는 점은, 자전 차원의 결강계를 안 받아주시는 교수님도 계실 수 있다는 것이다.
학: 학생회 차원에서 어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B: 반학생회장이 자의적으로 선별해서 결강계를 넘겨주는 것인가?
학: 잠깐이라도 나오면 3,4 결강계를 주고 그 이후부터는 뛴 사람들에게만 결강계를 주시면 좋겠다.
학: 사전으로 참여 인원 수합해서 결강계 받은 것이다. 원래는 사후에 했어야 했다.
결강계 문제는 중운위에서 더 얘기하겠다.

**논의결과 (1) 총학생회 차원의 결강계에 대해서는 지난 결정 사항을 그대로 집행**
**(2) 먼저 해산한 학우들에게는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장 명의의 결강계 발급**

## 3. 임시자전대회에 관한 논의(참고자료 1)

학: 임시 자전대회에 대해 논의해보자.
부: 설명하겠다. 의결기구로서 위계가 가장 높은 것은 학생총회다. 회칙에 보면 매학기 1회 이상 개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지를 학생 총회로 하고 안 되면 자전대회를 소집하는게 회칙에 맞지 않나 생각한다.
A: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서 저번 자전대회에서 자전대회를 바로 개의 할 수 있도록 회칙을 개정했었다.
학: 총회를 소집 요구하고, 안되면 바로 자전대회를 소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A: 절차 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학: '학생 총회 공지를 넣었는데 성립이 안 되면 바로 자전대회를 열 것이다.' 라는 공지를 사전에 띄우면 될 것 같다.
부: 회칙 개정, 선거 세칙, 자치 공간배정위원회, 성평등 세칙 제정 등 많은 문제가 다뤄질 것이다. 이 문제들은 학우님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학생총회 개의 노력 없이 자전대회에서 이를 의결 할 수는 있겠지만, 학우님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학생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더 이치에 맞지 않나 싶다.
참관인(최기선): 집장실 차원의 소수자 인권 위원회 문제도 포함될 것 같다.
학: 날짜를 정하고 총회를 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5월 19일이 좋을 것 같다. 총회, 자전대회 둘 다 개강 후 50일 이내가 원칙이다.
A: 총회를 전제로 한다면 금요일도 좋을 것 같다.
부: 19일로 하고 학생총회로 개최하되 성립 안 되면 자전대회로 바꾸겠다는 공지를 하는 것은 어떤가?
A : 회치게는 자전대회나 총회 모두 몇일 전에 공지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다. 그런 식으로 해도 될지 모르겠다.





부: '며칠 이내에 공지해야 한다' 같은 회칙은 형식적이고 부차적이라고 생각한다. 총회를 열지 않아서 학우님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 보다 절차상의 회칙을 위반하는 편이 오히려 괜찮은 것 같다.
학: 회칙 28조 임시회의 개최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데 학운위 자체에서 의결하면 될 것 같다. 회장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A: 총회, 자전대회 둘 다 19일에 해야 하므로 따로 의결하자.

**안건: 임시 자유전공학부 학생대표자회의 소집요구에 관한 건**
**찬성: 학생회장, B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C반 비대위장, A반 학생회장**
**반대: 없음**
**기권: 없음**

**찬성 5, 반대 0, 기권 0, 가결**

학: 학생총회를 자전대회날 열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보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안 올 것 같다.
부: 물론 학생회장의 말이 맞지만 불가피하게 같은 날에 해야 할 것 같다. 다른 날짜가 잡기 힘들고, 총회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자전 대회는 방학 중으로까지 미뤄질 것이다.
A: 그렇다 그리고 총회만 단독으로 열었는데 사람들 안 와서 개의가 안 되면 해산이다.
학: 학생총회, 자전대회 공지를 따로 하는 것이 어떠한가?
B: 총회 개의 자체에 부정적이다. 자주 갖게 되면 관심이 적어질 것 같다. 총회는 정말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한번 씩 열어야 그 힘을 발휘한다. 너무 자주 열면 관심도도 떨어지고 좋지 못하다.
A: 임시 총회가 열릴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닌 것 같다.
부: B반 학생회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두가지 중 선택해야 한다. 하나는 회칙대로 총회 소집을 의결하는 것이고, 총회가 중대한 사안에만 열려야 한다면 회칙에서 총회를 매학기 1회 개의한다는 조항을 삭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애매한게, 그 조항을 삭제하려면 자전대회에서 해야 할 것인데, 학생총회보다 위계가 낮은 자전대회에서 학생총회에 대한 사안을 개정해도 될까 하는 의문이 든다. 즉,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서도 총회를 열어야 할 것이다.
A : 관례 상 총회를 중요한 사안에만 해왔던 것도 생각해볼 문제다.
학: 다른 과를 보면 매 학기마다 성사되기도 한다. 이런 분위기는 만들어가는 것이다.
부: 학부 차원에서 보면 규모가 커지므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어려울 것 같다.
B : 성사의 여부를 떠나서 사안의 중대성 자체가 낮아질 것 같은 부분이 우려된다.
학: 인권 관련 세칙 제정 예정이다. 충분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b: 미래대학, 박근혜 이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 사안들이 총회에서 열렸는데 인권 세칙 적용과 같은 사안이 총회가 열릴 만큼의 중요성을 갖지는 못한다고 생각한다.
학: 그런데 회칙 개정은 자유로운가? 자전대회 인준만 받으면 언제든지 회칙 개정은 가능한가?
b: 가능하다. 자전대회는 그럴 권한을 회칙에 의해 부여받았다. 총회 개의 자체에 부정적이다.
C: 자전대회를 열어서 관심 있는 학우들이 오는 것이 좀 더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부: b반 학생회장님 의견도 이해되고, 공감된다. 이에 대해서 안건 상정은 하지 않겠다.
A: 학생회장님 말처럼 지금까지 안했더라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b반 학생회장이 말한 것처럼 자전학우들의 결의를 다질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 그렇다면 총회를 매학기 1회 개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회칙 개정안을 총회에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

C: 학생 총회를 했을 때 각 반에서 수요가 있다면 개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부: 수요의 문제를 떠나서 사안이 중대하면 소집 요구를 하고 꼭 와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게 옳다. 수요의 문제는 부차적 문제다.
학: 회칙 상으로는 총회 여는 것이 맞다.
B: 이 문제는 학생 대표자 회의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부: 학생 총회가 중대한 사안에만 열려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그러려면 회칙에서 매 학기 1회 총회를 개최해야한다는 조항을 삭제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총회를 열어 삭제하는 것이 위계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번은 여는 것이 옳다.

**안건 : 자유전공학부 학생총회 소집 요구에 관한 건을 학부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에 관한 건**
**찬성: 학생회장, B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C반 비대위원장, A반 학생회장**
**반대: 없음**
**기권: 없음**

**찬성 5, 반대 0, 기권 0, 가결**

**안건 : 자유전공학부 학생총회 소집 요구에 관한 건**
**찬성: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A반 학생회장**
**반대: B반 학생회장, C반 비대위원장**
**기권: 없음.**

**찬성 3, 반대 2, 기권 0, 부결(현장발의 안건의 경우 출석위원 2/3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

## 4. 이스포츠 대회에 관한 논의

부: 오버워치, 스타크래프트, 크레이지 아케이드, 한글과 컴퓨터 타자연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진표를 뽑자. 네 경기니까 네 번을 뽑아야 한다.

오버워치- B, C/A, D
스타크래프트- A, B/C, D
크레이지 아케이드- A, B/C, D
한컴 타자 게임- A, D/C, B

부: 체육대회 뒤풀이를 반끼리 같이하기로 지난번에 결정한 것 같다. 네 반 다 이 하는 것보다 두 반씩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다음 회의까지 생각해보자.





A: 학우 분들 의견 수렴해서 말씀드리겠다.

**논의 결과 (1) E-sports 대회 대진표 확정**

- 19:47 산회

**※ 공지 및 요청사항**
-

**참고자료 1. 자전대회 관련 회칙**

**제 2 절 학생총회**

**제26조【지위 및 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 본회의 준회원 ·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7조【정기회의】**
① 학생총회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 이상 개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개강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개의하여야 한다.

**제28조【임시회의】**
① 학생총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1. 학부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
2. 학생대표자회의 소집요구
3. 정회원·준회원 50명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4. 제86조에 따라 발의된 학부 학생회장단 사퇴 허가 요청
5. 제87조에 따른 학부 학생회장단 탄핵 발의
6. 제189조에 따른 회칙 개정안 발의

**제4절 학생대표자회**

**제55조【지위】**
학생대표자회는 학생총회 다음의 위계에 있는 의결기구이다.

**제56조【구성】**
① 학생대표자회는 각 호에 있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대표자를 대의원으로 한다.
1. 학부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2. 각 반 학생회 반 운영위원 중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신입생대표, 고학번대표 4인
3. 자치단체연합회장 및 부회장

4. 자치단체장

②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산하기구의 장은 궐위로 본다.

③ 궐위 대의원은 재적 대의원에서 제외한다.

④ 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연합회장 또는 부회장이 동일인일 경우, 의결권은 선택해서 하나만 행사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포기한 대의원직은 표결시 재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표결에 참여할 직책을 통보해야 한다.

⑤ 학생대표자회는 필요할 경우, 출석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결의로 대의원이 아닌 자에게 해당 회기에 한해 임시적으로 대의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57조【학생대표자회 대의원의 의무】**

① 학생대표자회 대의원은 학생대표자회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생대표자회 대의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학생대표자회 대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결 과정 전반에서 소속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④ 학생대표자회 대의원은 본회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58조【개의・의결요건】**

① 학생대표자회는 재적 대의원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에 해당하는 결의로 의결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결의로 의결한다.

1. 제61조의 학부 학생회장단 탄핵안 학생총투표 발의에 관한 사항
2. 제38조의 집행위원 해임에 관한 사항
3. 제39조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제41조 제 3 항의 학부・반 학생회비 인상・인하에 관한 사항
5. 제42조 제 1 항의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제59조【안건】**

① 학생대표자회의 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상정할 수 있다.

1. 학부운영위원회의 출석 과반수에 해당하는 결의
2. 정회원・준회원 50명 이상의 연서에 따른 임시회의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
3. 제86조에 따라 발의된 학부 학생회장단 사퇴 허가 요청
4. 제87조에 따른 학부 학생회장단 탄핵 발의
5. 제189조에 따른 회칙 개정안 발의

② 학생대표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1. 제32조 제4호, 제36조의 학부 학생회장 탄핵안건을 제외한 안건 중 학생총회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 및 학생총회의 위임을 받은 안건
2. 학부 학생회장단 탄핵안 학생총투표 발의 안건
3. 임시 학생총회 소집 및 안건상정에 관한 안건
4. 학생총투표 실시 및 안건 상정에 관한 안건